

작촌문학상 · 고천예술상 시상식 성료

국제PEN한국본부 전복위, 작촌문학상-김동수 시인 · 고천예술상-조경옥 시인 · 황점숙 수필가

사)국제PEN한국본부 전북지역위원회(회장 이정숙)가 주최하고 이강주(梨香閣-한국의 명주(名酒) 회장 조정형)가 후원하는 제15회 작촌문학상 및 제2회 고천예술상 시상식이 최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연가' 식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작촌문학상은 시조시인이자 선비정신의 표본이었던 작촌 故 조병희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향토문학의 가치를 높이는 문인을 대상으로 시상해오고 있다. 고천 예술상은 조병희 선생의 자제 고천(조정형 아호) 조정형 회장(梨香閣)이 장래가 촉망되는 도내 문인들에게 작년부터 수여해 오고 있다.



사)국제PEN한국본부 전북지역위원회가 주최하고 이강주가 후원하는 제15회 작촌문학상 및 제2회 고천예술상 시상식이 최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연가' 식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제1부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감사보고, 2022년도 결산안,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강지수 바이올린 연주자의 축하공연에 이어서 2부 순서로 내빈소개, 회장인사, 축·격려사, 시상식, 심사평, 축시 낭송, 수상 소감,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은 김용재 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을 비롯해서 소재호 전북예총 회장, 전주 이강주 조정형 회장, 김현조 전주문협 회장, 이형구 전북시인협회 회장, 김계식 교원문학회 회장, 백봉기 전북수필문학회 회장, 박귀덕 전북여류문학회 회장, 전북문학회 회장, 수상자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용재 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PEN은 1922년 영국에서 창건이 됐으며, 이후 145개국 154개 센터가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두 사람이 노벨문학상을 받았고, 일본계 영국 국적인 소설가 '가즈오 이시구로'에 까지 합하면 세 명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셈인데, 한국은 아직도 노벨문학상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 앞으로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또 전주에서도 좋은 작품이 많이 생산 돼서 세계적인 문단에 도전할 수 있고, 이를 바

탕으로 한국의 노벨문학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PEN문학 장교철 기획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작촌문학상은 김동수 시인이, 고천예술상에는 조정형 시인과 황점숙 수필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작촌문학상을 수상한 김동수 씨는 "조병희 선생의 작촌문학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조 선생의 향토 사랑과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문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김동수 씨는 백제예술대 명예교수와 UC 버클리대학 객원교수, 캘리포니아 국제문화대학 초빙교수, 완주문화대학장, 전라문화대학 이사장, 온글문학 발행인, 계간 씨글 편집주간, 사)전라정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정형 씨는 "시를 쓰려면 먼저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며 "아직도 미진한 삶이어서 시 또한 미진하기 짝이 없는데 뜻밖에 '고천예술상'을 수상하게 돼서 기쁘다. 독자를 위해 좋은 시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조정형 씨는 한

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전주문인협회, 전북시인협회, 전북펜문학, 전주교구가톨릭문우회, 한국녹색시인협회, 관화문 시인협회, 샘문학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점숙 씨는 "매일 한 줄의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소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심 끝에 고천예술상 수상 소식을 듣고 기쁨이 배가 되어 오랜 체증처럼 할 일을 미루고 있던 자신에게 분발하라는 촉진을 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점숙 씨는 현재 국제펜한국본부, 전북문인협회, 전주문인협회, 전북수필문학회, 한국산림문화회, 한국문예연구, 표현문화회, 가톨릭문우회, 샘문학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 많이 참석해주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연 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상식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정형 회장께 깊이 감사드린다. 작촌 조병희 선생의 문화적 업적과 그의 정신을 높이 받들어 한국문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고 역설했다. /양은경 기자



초록빛 자연, 보랏빛 낭만으로 가득한 6월의 영화 축제 '무주산골영화제'가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제11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 일정 확정

6월 2~6일 개최... 2월 28일까지 한국장편경쟁부문 '창' 색션 출품 공모

초록빛 자연, 보랏빛 낭만으로 가득한 6월의 영화 축제 '무주산골영화제'가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제11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며, 10일부터 한국장편경쟁부문 '창' 색션 출품 공모를 시작한다.

'실렘-울림-어울림'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0여 년간 국내 대표 낭만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무주산골영화제가 6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 일정을 확정 지으며 본격적인 열한 번째 출발을 일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그간 무주 속 자연을 스크린 삼아 전 세계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하고, 세대불문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소중 같은 영화제로 사랑받았다. 특히 지난해 2022년에는 10주년을 맞아 성장과 도약, 변화의 의지를 담은 새로운 페스티벌 아이덴티티(F.I: Festival Identity)를 공개함과 동시에 10주년을 기념하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다시 한 번 대체불가 낭만 가득한 문화 축제임을 인정받았다.

2023년, 열한 번째 개최를 맞이하게 된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산골영화제만의 독보적인

색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자연 친화적 문화축제로서,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개최 일정 확정에 따라,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한국장편경쟁부문 '창' 색션 출품작 공모도 시작한다. '창' 색션은 무주산골영화제의 유일한 경쟁 색션으로, 한국영화의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장편영화를 상영한다. 매년 9~10편의 작품들이 최종 선정되어 영화제 기간 중 상영되며, 선정작들 중 우수작에게는 뉴비전상, 감독상, 영화평론가상 등의 시상 부문에 따른 상금이 수여된다.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출품 신청서를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출품 조건에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작 완료된 60분 이상의 한국장편영화(영화제 상영작 또는 국내외 극장 개봉작 포함)로, 장르 제한 없이 출품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팀(전화 063-245-6401 또는 이메일 mjffapply@m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기자

국립익산박물관 특별전 '전북의 고대 성곽' 개최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홍선)은 10일부터 '전북의 고대 성곽'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1960년대부터 연구된 180여 기의 전북지역 고대 성곽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적의 침입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흙이나 돌로 둘러싸인 산 위에 거대하게 '성곽(城郭)'을 쌓았다. 조선시대 관리인 양성지(1415~

1482)가 우리나라를 '성곽의 나라'라고 했듯이 한반도 남부에는 현재 약 1,900여개의 성곽들이 남아 있다.

이번 특별전은 크게 3부로 구성, 고대를 중심으로 전북지역에서 확인된 옛 성곽의 특징과 함께 25개의 성곽에서 발굴된 유물 등 290건 380점의 전시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고대 성곽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내가 쌓은 성벽'과 스크래치 학습자료로 알아보는 '전북

의 성곽 이야기'가 상시로 운영된다. 겨울방학을 맞아 1월 20일~2월 17일까지 '전북 고대 성곽 탐험' 교육도 실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iksan.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익산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지난 60년 동안 쌓인 전북지역 고대 성곽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아직도 많은 성곽이 훼손되거나 조사되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조사계획과 보존계획이 필요하다"며 "이 전시로 지금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성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주제심화형' 선정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3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주제심화형'에 선정돼 국비 2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선정된 '예술로 그린GREEN 전주' 사업은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예술가와 기획자 그리고 환경단체들과 함께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전시, 포럼, 예술교육, 생활예술을 진행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고자 기획됐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된 예술 프로

젝트로, 과거 사업 준비 기간을 통한 안정적 사업계획과 예술가, 기획자, 환경단체가 함께 하는 안정적 거버넌스 사업 수행구조가 돋보였다"며 "작품 제작, 교육, 포럼, 워크숍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을 통한 지역 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론화 기능이 기대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공생에 대한 사색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시민에게 깊은 울림과 실천적인 삶의 동력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